

### 그 날의 클래식 소리는 우렁찼네

5·18민중항쟁 33주기 추모시-전 속

님이여, 5·18은 추억이 아니여요  
님이여, 5·18은 그리움이 아니여요  
'못 생명이 곧 하늘'인 파천황이 열리는 광명이어요

봄날처럼 연두로 싹터서  
만 가지 표정으로 아리따게 피어나고  
이웃과 갈매깃으로 무성하게 우거지는,  
님들의 보혈이 태반이 되고  
님들의 합성이 수정란이 되고  
님들의 고난이 태초이 되어  
세상의 모든 아픔을 위해  
세상의 모든 핏방울을 위해  
세상의 모든 억울함을 위해  
거룩하게 뿌리내린 '정의'의 포도나무여요

합조롭게 머문 민주의 새싹이 흉악한 총검에 짓밟히는데  
수룩한 자유의 혈맥이 잔혹한 곤봉에 뒤틀리는데  
새벽이슬 같은 평화의 꽃잎이 무참한 발길질에 수치를 당하는데  
차마 눈을 감고 손을 내밀면 마주 오는 상처의 매듭마다에  
그날의 통증이 도청 앞 분수처럼 솟구치는데  
우리들 가슴에는 아직도 비탄의 강이 천둥소리로 흘러가는데  
어느 부모가, 어느 자식이, 어느 이웃이  
손 놓고 뉘 놓고 담벼락에 숨어서 까치발로 구경만 하겠는지요

무릎을 낮추고 낮추어 향기롭게 피어내리는 보랏빛 등꽃처럼  
가시마저 제 향기를 녹여 새들의 먹이가 되어주는 켈레덤꽃처럼  
이웃의 아픔을 목숨으로 증언한 그날의 클래식소리는  
가장 낮은 곳에서 불끈 몸을 일으킨 풀꽃들의 깃발이어요  
세상의 양심을 깨우는 부모들의 애끓는 사자후여요  
부모를 지키려는 자식들의 지극한 기도여요  
선한 이웃들의 주먹밥으로 고인 인권의 징검다리여요

이제, 우리는 호랑이의 어금니에도 쪼기지 않는 풀꽃이어요  
내 아이도, 내 부모도, 내 이웃도 안전하게 지켜낼 방패여요  
그날의 클래식 소리가 피토하는 무릎을 구원하였듯이  
광주는 인권의 어두운 골짜기를 무량하게 비추는 빛의 무등이어요

님들의 뜨거운 보혈로 우리는 자유여요  
님들의 우렁찬 합성으로 우리는 평화여요  
님들의 꺾이지 않는 의기로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어요

## 광주시민 '5월 증후군' 치유한다

### 광주트라우마센터 '심리치유 이동센터' 운영

“광주시민 모두가 5·18민중항쟁의 피해자였다.”

1980년 5월 당시 사망자나 부상자·구속자 등 5·18항쟁의 직접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각계의 연구와 치료·치유에 대한 노력은 지속돼 왔다. 하지만 피해 공동체의 구성원인 광주시민에 대한 피해와 의식에 대한 조사는 단 한차례도 없었다.

5·18민중항쟁 33주년을 맞아 최초로 광주시민을 대상으로 한 심리치유가 시작된다. 심리치유는 5·18상처의 흔적이랄 수 있는 옛 전남도청과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이뤄진다.

광주트라우마센터는 광주시와 함께 5·18 33주년 행사가 진행되는 17일~19일 '5월 증후군'을 앓고 있는 광주 시민을 대상으로 '5월 심리치유 이동센터'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트라우마센터가 최근 광주시민 3001명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

조사에서 ▲대상자의 55.8%가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5월이 되면 5·18에 대한 생각이나 그림이 떠오른다'고 답변하고 ▲43.2%가 '5·18민주화 운동을 생각할 때 분노, 슬픔, 죄의식 등 매우 강한 정서를 느낀다'고 응답. 대부분의 시민들이 5월 증후군(심리적 외상)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은 1980년 5월 항쟁 자체가 폭도들의 난동으로 매도됐고, 광주시가 지역적으로 철저하게 고립되면서 시민들은 개개인의 물리적 피해를 넘어 존엄과 정체성에 회복할 수 없는 심한 타격을 입은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5월 증후군'은 1980년 5월을 경험한 광주 시민, 5·18 관련자와 가족, 외국인들이 5월만 되면 불안하고 답답해하며 우울한 기분에 사로잡히는 증상을 말하는 것으로 1990년 전남대 심

리학과 오수성 교수가 만든 용어다.

이를 위해 광주트라우마센터는 '심리치유이동센터'를 통해 시민들의 심리상태에 대해 간이 검사와 개인상담을 실시하고, 증상이 심각하면 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치유 프로그램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들의 트라우마 치유를 위해 치유의 인문학을 개최하는 등 각종 사업도 전개할 예정이다.

최연주 광주시 복지건강국장은 "치유이동센터를 통해 시민들의 심리적 외상으로 인한 고통을 알려 아픔과 상처를 어루만지고 공감하는 치유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강용주 광주트라우마센터장은 "80년 5월은 잔혹한 폭력은 물론 집단학살이 자행됐기 때문에 이를 지켜본 광주 시민 모두가 충격을 받았고, 지금까지 측정하기 힘든 심리적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희경기자 chae@kwangju.co.kr

## 치석제거도 건강보험 적용

### 7월부터 연 1회씩...75세 이상 노인 틀니도 혜택

7월부터 연 1회에 한해 치석제거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만 75세 이상 노인의 부분틀니도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계통 복지부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이렇게 결정했다. 잇몸 질환 예방과 치아 보존을 위해 정기

적인 치석제거가 중요하나 현재는 구강외과 시술 전단계로 실시하는 경우에만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건강성이 이바지 치석제거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함에 따라 7월부터 만 20세 이상은 다른 치료와 무관하게 연 1회에 한해 저렴한 비용으로 치석제거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치주질환 예방 목적의 치석제거 수가가 3만2210원으로 결정돼 본인부담은 진찰료를 포함 1만3000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복지부의 배경택 보험급여과장은 "수가 결정의 영향으로 연간 2회 이상 치석제거를 받을 때에도 현재보다는 진료비가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남아 있는 치아에 고리(클라스트)를 걸어 끼우는 부분틀니도 만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부분틀니의 본인부담은 수가(121만원)의 50%인 61만원선으로 정해졌다. 현재 부분틀니 비용은 137만~145만원이다. /연필뉴스



'33주년 걷개 시화전' 15일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은 참배객들이 묘지 입구에서 전시된 '33주년 걷개 시화전' 작품을 관람하고 있다. /나영주기자 mjna@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5시 28분 해질 19시 30분 달뜨기 10시 24분 달짐 --시--분

**여름 더위**  
평년보다 기온 높고 대체로 맑겠다.

광주	맑음	15/28°C
목포	맑음	14/24°C
여수	맑음	15/20°C
나주	맑음	14/28°C
완도	맑음	15/22°C
구례	맑음	13/27°C
강진	맑음	14/23°C
해남	맑음	14/24°C
장흥	맑음	14/24°C
순천	맑음	12/25°C
영광	맑음	12/26°C
진도	맑음	14/23°C
전주	맑음	14/28°C
군산	맑음	12/26°C
남원	맑음	12/27°C
홍산도	맑음	13/21°C

〈오전〉 바다  
서해 남부 앞바다 북동~동 0.5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1.0~2.0m

〈오후〉 바다  
서해 남부 앞바다 북동~동 0.5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1.5~2.5m

◇주간날씨 기상내선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17(금)	18(토)	19(일)	20(월)	21(화)	22(수)
날씨	☀	☀	☀	☀	☀	☀
최저/최고	13/26	14/25	16/23	15/27	14/29	15/29

### 여수 만성리·함평 돌머리 해변 오늘 첫 개장

여수 만성리 검은모래 해변과 함평 돌머리 해변이 16일 전국에서 가장 먼저 해수욕장을 개장한다. 함평 돌머리해변에선 개장일인 16일 오전 피서객과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장식과 함께 지역에 슬던 공연, 지역노인 경로위안잔치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린다. 여수 만흥동에 위치한 만성리 검은모래 해변은 한려해상 국립공원에 속하는 경승지로 해송숲과 참양철벽이 장관을 이루고 있다. 국내에서 보기 드문 검은모래는 혈

액순환과 노폐물의 배출을 촉진시키는 쥘쥘효과가 탁월해 건강해수욕을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다. 신안 우전해변 등 도내 13개 해변은 5월 말 개장한다. 무안 뜰머리, 진도 가계해변 등 20개 해변은 6월말에, 영광 가마리, 해남 팜골송호해변 등은 7월초에 연다. 전남도는 올해 해변 이용객 유치목표를 620만명으로 정하고 해양레포츠, 승마체험, 뱃체험, 뱃장어잡기 등 다양한 체험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정필수기자 bungy@

**홍도 방문객 관람료 폐지**  
신안군, 33년만에

지난 1980년부터 홍도 방문객에게 징수하던 문화재 관람료가 33년 만에 폐지됐다. 15일 신안군에 따르면 그동안 홍도 관광객에게 일반인 기준으로 1인 1000원을 받던 관람료 징수 조례를 폐지, 전일부터 받지 않고 있다. 2007년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로 이어 유사한 문화재 관람료 징수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됐고 징수 과정에서 관광객들과 잦은 마찰이 일어 행정 절차를 거쳐 폐지하게 됐다고 군은 설명했다. '천연기념물 170호'인 홍도는 지난해 한국관광공사가 뽑은 우리나라에서 가고 싶은 관광지 1위로 선정됐다. /신안=이상선기자 sslee@

**ELYSIA** 엘리시아 [www.elysia.co.kr](http://www.elysia.co.kr)

“축복 받은 집” .....  
**씨푸드 뷔페 엘리시아**

새롭게 태어난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새로운 감각으로 탄생한 스페셜 메뉴  
행복하고 특별한 모임을 만들어드립니다!

**예약문의 엘리시아 예약실**  
(상무지구 세정아울렛 3층)  
**062)385-3000**

구분	평일	주말, 공휴일
성인	23,000 / 27,000	30,000 / 33,000
초등학생	12,000 / 14,000	15,000 / 17,000
유아 (48개월이상)	7,000 / 9,000	10,000 / 12,000

위 금액은 VAT 포함가격입니다.  
홈페이지([www.elysia.co.kr](http://www.elysia.co.kr))에 회원가입을 하시면 항상 10%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각종 할인 이벤트 진행중 (홈페이지 참조)

**엘리시아컨벤션 안내 (별관)**  
고급스러운 분위기 연출과 차별화된 음식으로 초대되신 분들을 귀하게 모시겠습니다.  
60석 80석 100석  
120' 대형 빅프로젝트 및 음향시설 완비  
결혼 피로연 / 각종 세미나 / 워크샵  
돌잔치 / 회갑 / 칠순연  
이용요금 ₩27,000~₩33,000

**Special Service**  
특별한 모임을 만들어드립니다

**나고야**  
제철음식 일식전문점  
엘리시아 협력업체  
예약전화(초밥 포장 및 배달가능)  
**385-9696**  
상무병원 응급실 건너편 / 주차장 완비

**정식특선**  
참조기탕 12,000원  
생우럭탕 12,000원  
대구탕 15,000원  
생선초밥 12,000원  
특초밥 15,000원  
생선구이 15,000원  
굴비정식 20,000원  
나고야정식 25,000원

**정식코스요리**  
A코스 40,000원  
B코스 50,000원  
C코스 60,000원  
(1인기준 2인이상)  
**주말 가족특선**  
4인 한상차림 100,000원  
(토요일, 공휴일에 한함)

**전국꽃배달서비스 365일 24시간**  
[www.flowerelysia.co.kr](http://www.flowerelysia.co.kr)  
예경사화환 / 축하화환 / 꽃바구니 / 꽃다발  
인터넷주문, 카드결제, 계좌이체 가능  
**☎ 062)513-4000**

**엘리시아꽃배달 OPEN기념 이벤트!**  
꽃, 화분 등 5회 이상 주문시 [5만원 이상]  
엘리시아 상품권 5만원권 증정  
꽃 + 엘리시아 식사권 묶음 상품  
30% 할인판매 "엘리시아 꽃배달" 홈페이지에서 구입가능